

2010년 제 9 회



Los Angeles



이화여자대학교

#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North America Conference**

**November 11 - 14, 2010**

**The Westin Bonaventure Hotel  
Los Angeles, California**



### 북미주지회연합회 회보 발간에 즈음하여

김 순 영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존경하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이화동창 여러분 !  
지난해에 이어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소식지가 모든 북미주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동창들의 화합을 확고히 하며 모교의 소식, 총동창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 모교와 조국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게 간직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화는 우리를 바른 인성과 지성을 갖추도록 키우고 거기에 더하여 아름다운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화의 전통과 역사를 지켜나가며 사회 각 분야에서 나아가 세계에서 섬김과 나눔 봉사과 희생, 헌신의 정신을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화동창들의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릇 이화정신의 덕목 중에 하나는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사고와 자기반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고 화합한다는 것은 나와 더불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일방적일때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민주적일때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과 질서와 우리들의 균형 있는 사고입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창립된 지 어언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908년 5명의 동창 회원으로 시작한 우리 동창회는 현재 18만여명의 동창 회원이 있고 14개 단과대학 동창회, 57개 과 동창회, 25개 국내지회, 55개 해외지회 등 여자대학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동창회로 발전하였습니다. 동창회는 항상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정신적으로는 물론 모금 활동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동창들의 친목을 다져 왔습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모교에서는 김선옥 총장이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김선옥 총장은 취임사에서 모교 이화의 시대적인 소명은 이화의 가치를 한국을 넘어 세계 사회에서 구현해야 하며 경쟁과 개인주의가 아니라 상호 협력과 공동체 중심의 가치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교 이화는 시대변화를 예측하는 혜안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이화동창 여러분 !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발전해 가는 모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자부심은 우리 모두를 이어 주는 가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하는 북미주지회연합회의 소식지가 많은 동창들의 결집력의 역할을 하며 화합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모교 사랑으로 이어 지기를 바랍니다.

소식지 발간과 모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명애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지회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화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김 순 영



## 동창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장 오명애  
북미주 지회 연합회

안녕하십니까?

북미주 지회 동창여러분, 이화여대 개교 124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제9회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 연합회를 지회동문 여러분들의 성원속에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11월 이곳 LOS ANGELES 에서 개최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 학창시절 신촌역에서 교외선을 타고 차창밖에 펼쳐진 풍성한 들녘 가을경치를 즐겼던일, 학교정문에서 후문까지 낙엽이 좋아 일부러 낙엽을 밟으며 가을에 흥뻑 젖었던일, 11월 약간은 쌀쌀한 날씨에 바바리 코트 주머니에 땅콩을 가득넣고 먹으며 거닐던일등, 행복했던 추억이 많은 11월입니다. 이런11월에 이곳 LOS ANGELES 에서 여러 동창님들을 만나뵙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 입니다.

또한 멀리 한국 에서부터 참석하실 김선옥 총장님, 김순영 총동창회장님 및 임원들, 미국각지, 캐나다, 유럽에서 오실 동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9회 LOS ANGELES 지회연합회는 모든 동창 또는 지회에도 활짝 문이 열려있습니다. 모두 오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 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남가주 지회 전임원 들은 지회연합회 행사가 성공리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월11일 만나뵙 때 까지 북미주 여러 동문님들의 가내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오명애







**이화여자대학교 제14대 총장으로  
김선옥 총장님께서 지난 8월 1일자로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SUNUK KIM** PRESIDENT  
EWhA WOMANS UNIVERSITY

**학력**

1975.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7.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공법 전공 석사
1988.	독일 UNIV. KONSTANZ 법학대학 행정법 전공 박사

**주요 경력**

1995. 9.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교수(법학전문대학원)
2001. 8. - 2003. 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원장
2003. 7. - 2004. 6.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2005. 1. - 2007. 4.	대한민국 법제처 법제처장
2007. 11. - 2009. 11.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2008. 2. - 2009. 3.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2008. 12.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2010. 8.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EDUCATION**

1971. 3 - 1975. 2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LAW & POLITICAL SCIENCE, KOREA (LL.B.)
1975. 3 - 1977. 8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LAW, KOREA(LL.M.) (PUBLIC LAW)
1981. 10 - 1988. 8	UNIVERSITY OF KONSTANZ, COLLEGE OF LAW, GERMAN(DR.JUR) (ADMINISTRATIVE LAW)

**EXPERIENCE**

1989. 7 - 1995. 8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OFFICE, SENIOR RESEARCHER
1995. 9 -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LAW, ASSISTANT PROF./ ASSOCIATE PROF./PROF.
2005. 1 - 2007. 4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2007. 11 - 2009. 1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OLICY ADVISORY COMMITTEE, CHAIRPERSON
2008. 2 - 2009. 3	KOREAN ASSOCIATION OF GENDER AND LAW, PRESIDENT
2008. 3 -	KOREA PUBLIC ADMINISTRATION CASE STUDY ASSOCIATION, AUDITOR
2008. 12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OF LEGAL EDUCATION

4 제9회 행동창의 북미주 지회연합회



CONTENTS	
총동창회 회장님 인사말	2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님 인사말	3
신임 총장 Profile	4
북미주 지회장 명단	5
지회 연합회 발전사	6
년도별 연례회의 주최 지회	7
수필-정용순	8
시 - 김유경	8
국제재단 소개	9
시 - 유봉의	10
시   - 김유경	10
지회소식	11-20
Alaska	11
Atlanta	11
Baltimore	12
Boston	12
California S.	13
Cincinnati	14
Cleblend	15
Houston	15
New York	16
Ottawa	16
St. Luise	17
San Francisco (N. CA)	17
Seattle	18
Texas N.	18
Washington D.C.	19
Canada - Edmonton	19
Canada - Toronto	20
수필-신영봉: 칭찬전문가	22
글-김용란	23

북미주 지회장 명단			
주	지회명	지회장	전공졸업
AK	ALASKA	김연순	화학 59
AZ	ARIZONA	조한숙	전산 89
CA	SAN DIEGO	박옥심	특교 77
CA	SAN FRANCISCO	조성연	사회 90
CA	S. CALIFORNIA	오명애	미술 74
CO	DENVER	정재연	영문 68
DC	WASHINGTON DC	김홍자	섬예 07
FL	ORLANDO	이연숙	물리 68
GA	ATLANTA	장식란	미술 68
HI	HAWAII	곽영자	의학 70
IL	CHICAGO	조경남	조소 68
KS	KANSAS	안순태	법학 90
MA	BOSTON	조수현	수학 76
MD	BALTIMORE	지명의	약학 71
MI	DETROIT	오미령	식영 77
MI	E. LANSING	조미영	미술 85
MN	MINNESOTA	심연숙	사목 62
MO	ST. LOUIS	정용순	상학 62
NV	LAS VEGAS	이희련	의학 63
NY	BUFFALO	조보인	의학 64
NY	NEW YORK	유덕향	약학 71
OH	CINCINNATI	김영채	영문 59
OH	CLEVELAND	김진경	의학 81
OR	PORTLAND	손영의	교육 72
PA	PA ALLENTOWN	김여흠	영문 58
PA	PA NE	김예숙	영문 68
PA	PHILADELPHIA	강예란	화학 72
RI	RHODE ISLAND	이길자	의학 66
TN	NASHVILLE	김애경	의학 75
TX	HOUSTON	김성혜	도예 84
TX	TX NORTHERN	김연향	교육 62
WA	SEATTLE	양명순	생미 69
CN	EDMONTON	김정자	기독교 61
CN	MONTREAL	이채화	무용 76
CN	OTTAWA	장소영	사목 75
CN	TORONTO	조미리	도예 81
CN	VANCOUVER	정인순	보교 70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발전사

유 덕향 (약학 71)

북미주에는 현재 30개가 넘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산하 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동창회로서, 5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지회부터 최근에 세워진 지회, 회원수가 천명을 넘는 지회부터 수십 명의 아주 작은 규모의 지회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4년에 발간된 이화100년사에는 해외 지회에 대한 총동창회의 회칙과 함께 해외 지회 명단이 나옵니다. 그 중 북미주에는 1986년의 현황으로 총 25개의 지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다양한 지회들이 총동창회 산하에서 오래 전부터 활동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회에 속한 동창들이 함께 모여 교제한 연합의 역사는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미주 여러 지회들이 연합하여 모이기 시작한 것은 모교의 총장님이 국제재단 연례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매년 미국을 방문하시는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40년 전 이화학당 이사장이셨던 김활란 박사님의 헌신으로 이화국제재단이 세워진 후, 모교의 김옥길 총장님은 국제재단 사무실이 소재한 뉴욕을 매해 방문하셨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동창들도 총장님을 만나 모교 소식을 나누고자 각지에서 국제재단 연례회의가 있는 시기에 뉴욕으로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모임에 한층 발전된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의 동창들이 아예 국제재단 연례회의를 그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모교 총장님도 쉽게 만나고 해당 지역의 동창회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1976년 이후 각 지역 동창지회가 국제재단 회의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TABLE 참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여러 지회들이 모여 서로의 소식도 주고 받고, 북미주에 계신 동창들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편리한 만남의 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990년대에는 그 연례 모임에 참여하는 지회 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국제재단 내에 동창 관계를 조직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ARC (ALUMNAE RELATION COMMITTEE)가 생겨서 동창들의 참여를 적극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1998년부터는 멀리 모교 총동창회에서도 참여하여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2001년 시카고에서는 이른바 '북미주 총동창회' 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동창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모교의 총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총동창회는 동창의 분열을 우려하여 새로운 동창모임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미주에 동창 모임이 두 개가 된 셈이 되어, 이 때부터 일부 동창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까지 아무런 명칭도 필요 없이 일 년에 한 번씩 총장님의 미국 방문에 맞추어 모여 왔던 지회들의 모임은, 2002년 5월 모교 고사리 수련관에서 북미주 지회장들과 모교 총동창회 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오랫동안 모여오던 기존의 동창 모임에 '북미주 지회연합회' 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1976년부터 지속해 온 연례모임은 2002년 11월 ORLANDO, FLORIDA 모임부터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라 칭했으나, 이는 이전의 연례모임과 형식과 성격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TABLE 참조). 2003년에는 북미주에 있는 30여개 지회들 중 총 27개 지회 찬성, 1 지회 반대, 2 지회 기권으로 지회연합회라는 이름, 운영 체제와 회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지회연합회' 라는 명칭은 총동창회 회칙에 근거하여 북미주 지회와 모교 총동창회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즉, '북미주 지회연합회' 는 모교 총동창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북미주 지회들의 연합체로서, 북미주 1만여 동창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총동창회 회칙에 의하면, 이화여자대학교의 '총동창회' 는 오직 하나이며, 이 회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총동창회 회칙 3조). 그리고 지방이나 해외에서는 총동창회의 회칙을 수락하는 조건 하에 '지회' 를 조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총동창회 회칙 24조). 2001년 이른바 '북미주 총동창회' 라는 조직이 생기면서, 모교 총동창회 회칙에는 (기존의) 해외 지회는 국가별로 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총동창회 회칙 26조). '북미주 지회연합회' 라는 이름에는 미국의 여러 주가 연합하여 미합중국을 이룬 것 같이, 북미주 지역 여러 지회들이 모여 연합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모교 총동창회의 적절한 절차와 승인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모교의 권고를 무시하고 설립된 이른바 '북미주 총동창회' 와는 달리, '북미주 지회연합회' 는 모교 총동창회의 회칙에 의거하여 적법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모교 총장님과 총동창회장님은 '북미주 지회연합회' 연례 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2009년 DENVER 총회에서 '북미주 지회연합회' 는 이른바 '북미주 총동창회' 와 함께 하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세부 실행 계획을 TFT (TASK FORCE TEAM) 에게 맡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회의 특성을 살리고, 모교 총동창회의 회칙을 지키자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와는 달리, 개인 중심 동창회 참여와 중앙 집권제를 지향하는 이른바 '북미주 총동창회' 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북미주 지회장들은 두 모임 간의 이견이 줄어들 수 없는 것이라 판단, 2010년 7월 17일 덴버에서 모여 총동창회 회칙에 근거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2010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연례총회는 종전 방식대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남가주 지회의 주최로 LOS ANGELES에서 열리게 됩니다.



### 년도별 연례회의 주최지회

YEAR	MEETING PLACE / 주최 지회	주최지회 회장	참석 이대 총장	참석 총동창회장
1970	Hotel New Yorker, NYC		김옥길	
1971	Statler Hilton, NYC			
1972	Interchur Center, NYC			
1973	York Club, NYC			
1974	York Club, NYC			
1975	York Club, NYC			
1976	워싱턴 디시 지회	김정자 (62 가정)		
1977	York Club, NYC / 대뉴욕 지회	이해경 (50 음악)		
1978	Evanston, IL / 시카고 지회	전신애 (65 영문)		
1979	New York, NY / 대뉴욕 지회	장한희 (53 기독교)	정의숙	
1980	Southfield, MI / 디트로이트 지회	김신형 (49 가정)		
1981	Los Angeles, CA / 남가주 지회	김성자 (61 교육)		
1982	Chicago, IL / 시카고 지회	최순자 (66 의과)		
1983	New York, NY / 대뉴욕 지회	조 연 (61 약학)		
1984	Philadelphia, PA / 필라델피아 지회	장창희 (62 가정)		
1985	Gaithersburg, MD / 워싱턴 디시 지회	한순정 (58 미술)		
1986	San Francisco, CA / 북가주 지회	이명희 (62 교육)		
1987	New York, NY / 대뉴욕 지회	이부자 (60 사회)		
1988	Toronto, Canada / 토론토 지회	여정자 (67 기독교)		
1989	Evanston, IL / 시카고 지회	최경혜 (60 법학)		
1990	Los Angeles, CA / 남가주 지회	이희성 (60 영문)	윤후정	장의순
1991	San Francisco, CA / 북가주 지회	최홍자 (62 사회)		
1992	Detroit, MI / 디트로이트 지회	김정숙 (62 의과)	윤후정*	
1993	Houston, TX / 휴스턴 지회	임예자 (65 사학)	윤후정	
1994	New York, NY / 대뉴욕 지회	임병대 (60 교심)		
1995	Vienna, VA / 워싱턴 디시 지회	오성미 (64 영문)		
1996	Boston, MA / 보스턴 지회	김경애 (70 의학)	장 상	
1997	Toronto, Canada / 토론토 지회	정인영 (68 물리)		
1998	Atlanta, GA / 아틀란타 지회	김은숙 (68 사학)		성정순
1999	Chicago, IL / 시카고 지회	윤미혜 (64 사사)		
2000	Anaheim, CA / 남가주 지회	김대훈 (60 화학)		
2001	Troy, MI / 디트로이트 지회	이해경 (69 신방)	신인령	최명숙
2002	Orlando, FL / 올란드 지회	하명숙 (66 체육)		
2003	San Francisco, CA / 북가주 지회	강영자 (64 기독교)	신인령**	윤순희
2004	Houston, TX / 휴스턴 지회	김성혜 (72 식영)		
2005	Cleveland, OH / 클리블랜드 지회	이선희 (70 교심)	신인령	
2006	Toronto, Canada / 토론토 지회	김선희 (67 교육)	이배용	
2007	Fort Lee, NJ / 대뉴욕 지회	최성남 (70 약학)		김순영
2008	Seattle, WA / 시애틀 지회	이정형 (63 약학)		김순영***
2009	Denver, CO / 덴버 지회	이미옥 (68 국문)		김순영

\* 총장 인사말 대독

\*\* 장필화 대학원장이 참석, 총장 인사말 대독, 총장 동영상 인사

\*\*\*부회장 참석



# 성악가 “조 수미”

정흥순

아인슈타인에게 누가 물었다.

“선생님께 죽음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 그것은 내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긴 저승에서 두 천재가 만나도 그곳에서 음악을 연주할 수도 감상할 수도 없으리라. 역시 음악이 있는 이 세상이 하늘나라 보다 즐겁다. 그래서 나의 친구 K는 황홀한 무아경을 열어주는 모차르트를 숭배하고, 이 경지에서 삶의 기쁨을 찾은 아인슈타인을 존경한다.

K는 한 수 더 떠서 ‘조수미가 부르는 모차르트의 아리아를 들을 수 없는 상태’가 자신의 죽음이라고 토를 달았다. 그토록 좋아 하는 수미의 노래를 공연장에서 들어보지 못하고 CD로만 노상 듣고 있는 것이 좀 안됐으나, 디지털시대의 음향재생기술에 K는 크게 만족하고 있다.

나 역시 어릴 때부터 노래를 무척 좋아 해온 터라, 백년에 몇 번 나타날까 말까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너무나 반가워 YOUTUBE를 열어 그녀를 만난다. 수미의 예술적 직관은 가히 천재적이다. 발성이 독보적이며서 육성의 한계인 고음 E.F로 날라 올라가 크리센도와 디미누엔도를 자유자재로 한다. 선율이 그의 우려한 숨결을 타고 흐를 때, 나는 압도되어 숨이 막히고 소름이 돋는다.


소프라노들은 흔히 높은 소리를 낼 때 뒷대를 올려 악을 써서 그 소리가 너무 강하다. 아주 가늘고 약한 피아니시모로 고음을 내는 수미의 여린 음색(MBRF)이 귀에 익으니, 사나운 프리마돈나들의 소리가 너무나 무겁고도 날카로워 귀에 거슬린다. 큰 오페라 홀에서는 이들이 큰 성량으로 판을 치겠지만, 감성의 깊이와 세련미에서 수미에게 못 미친다.

칼라스와 티발디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나에게 있어 이들의 시대는 갔다. 캐들린 베를은 소리를 잃었고, 나탈리 데세이도 기울어 가는 것이 안쓰럽다. 오직 수미만이 85년 데뷔 이래 공공비명을 계속하고 있다. 그에게는 프리마들이 떠벌리는 거만이나 자기 과시가 없다. 마치 소녀처럼 소박하게 예술의 길이 끊임 없는 자신과의 싸움임을 토로할 때, 바로 저 순수함이 나의 속 깊이 스며오는 감동의 비밀인가 느껴진다.

내가 소문으로 아는 두 신사가 수미와 바르톨리를 비할 때 누가 더 좋은가로 대판 논쟁을 벌였다. 바르톨리의 편이 수미를 깎아 내리니 그의 친구는 수미의 노래가 너무나 좋아 오줌을 싸다고 과장과 익살로 반박. 서로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최고의 콜로라투라와 최고의 메조소프라노의 우열을 가릴 길은 물론 없다. 그러나 이해와 타산으로 싸우는 각박한 세태에서, 심미적 취향 때문에 다투는 것 또한 풍류가 아닐까.

세계정상에 우뚝 서 있는 조수미. 그녀의 노래가 내 삶에 화사한 색채를 더해준다.



필자 : 정 흥 순 (세인트루이스 거주)  
이화여자대학교 음대졸업,  
<꽃씨부리는 마음> 초대 편집장 역임  
<한겨레저널> 고문, 칼럼리스트

# 霽月堂에 앉아 먼 길을 본다

김유경

낮은 구름처럼  
 여기 걸터앉으니  
 시간도 따라 멎는다  
 저기 문은 있으니  
 발 아래 열려 있고  
 낮은 담장은 반쯤 기다  
 그대로 오늘이 되어 서 있는데  
 문 안도 아니고 문 밖도 아닌  
 신수유는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이 낮은 풍경의 시작은  
 어디였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길의 끝은 언제나  
 그리움만으로 예감되고 있으니  
 이 쪽과 저 쪽을 가릴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걸 미침내 알겠다  
 이따부터 대숲을 흔드는 바람은  
 이미 내 안에 있고  
 겨우내 깊어진 계곡따라  
 초저녁 빛소리 지니고 너만  
 어둠은 더욱 깊어지고  
 달빛 더욱 밝아지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뜻밖의 황홀에 기댄 이 순간  
 이곳에서 나머저 지우고 싶다

\*제일당 - 전남 담양 소쇄원에 있는 內堂으로  
 “비개인 하늘의 성곽한 달”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은 미국인들이 이화를 돕기 위하여 1947년 미 연방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EWHA WOMANS UNIVERSITY COOPERATING BOARD IN NORTH AMERICA>와 김활란 전 이화학당 이사장을 중심으로 1967년 설립된 <재미이화10년발전사업후원회>가 합병하여 1970년 발족되었습니다.

지난 40여년간 국제재단은 크고 작은 이화의 사업을 위해 모금과 후원을 해왔고, 각종 연구비, 도서비 및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09년도 회계년도에 총 \$497,215.26의 기금을 모금하였고(재단이사진 39%, 동창 44%, 비동창등 일반의 후원이 36%), 동년도에 이화대학교로 지원한 후원금은 총 \$509,024.43 였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이화대학교에 전달된 후원금에는 각별한 기금이 들어있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을 강타한 경제적인 난국으로 인해 세계 시장의 미래를 내다 보기 어려워지자, 11월 씨애틀에서 열린 재단이사회에서는 각 개별 장학금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재단의 이사진이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모아놓은 예비기금에서 \$50,000과, MARK GASTON 이사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으로 \$50,000, 도합 \$100,000의 기금을 <국제재단장학금>이라는 일반적인 명칭 아래 이화대학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비기금의 출연금은 재단이사진이 별도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재단에는 한국의 이화대학을 지원하는 기금 이외에도, 미국에서 대학원 이상의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동창을 지원하는 장학금과 이화 국제하이프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한인 2세를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두 장학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장학금 신청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자기소개서(PERSONAL ESSAY) 등을 국제재단 사무실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재단의 활동은 일찌기 동창 뿐 아니라 동창의 가족, 비동창인 미국인 및 캐나다인들에게 이화 후원의 길을 열어놓아, 다른 많은 대학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타대학의 동창들도 이곳에 재단을 설립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제재단 사무실에는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타대학 관계자와 동창들의 문

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화 국제재단의 설립과 역사가 매우 독보적이라면서, 이화의 미국인/캐나다인 친구들과 북미주에 사는 동창과 가족이 그 이른 시기부터 한국의 이화대학을 후원하는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해왔다는 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찌기 이화를 도운 이화의 친구들과 멀리 세계화의 길을 내다본 김활란 선생님의 혜안에 감사할 뿐입니다.

현재 국제재단에는 개인이 설립한 100여 개의 장학금과 북미주 27개 동창지회에서 설립한 각 지회별 장학금, 해외동창기금, 의과대학기금, 약학대학기금 등 다양한 기금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재단은 501(C)(3) 인가를 받아 INTERNAL REVENUE SERVICE 의 법규를 준수하며 엄격히 기부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전액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국제재단은 지난 4월에 창립 40주년을 맞아 재단을 통하여 이화대학을 후원하여준 동창들을 비롯한 많은 후원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새로운 40년을 바라보는 눈으로 헬렌김소사이어티를 창설하였습니다. 헬렌김소사이어티는 10만불 이상의 장학기금을 설립하거나 약정하는 헬렌김 리더쉽 소사이어티(HELEN KIM LEADERSHIP SOCIETY)와 유증을 통해 사후 기부를 약속하는 헬렌김 헤리티지 소사이어티(HELEN KIM HERITAGE SOCIETY), 이 두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32명의 리더쉽 소사이어티와 8명의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멤버가 있습니다. 또한 40주년을 기념하여 40개의 새로운 장학기금 설립을 목표로, 모금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설립에 관심있는 많은 동창의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및 연락처: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INC.

TEL. 212.864.5759 FAX. 212.864.2552  
EMAIL: EWHAFDN@AOL.COM  
WEBSITE: WWW.EWHAFUNDATION.ORG  
475 RIVERSIDE DRIVE #1505, NEW YORK, NY 10115



## 시인 유봉희 동문과의 DEATH VALLY 여행



북가주 지회에서는 2008년 1월 13일 부터 15일까지 대스밸리 여행에 다녀왔습니다.

DEATH VALLEY 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의 경계에 있는 고온의 사막으로 해발보다 95M 낮은 소금벌판이 있고 금맥을 찾던 개척자들이 모래사막에서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대스밸리 경치를 보시고 쓰신 우리 북가주 지회의 동창이신 시인 유봉희 동창(사회 65) 의 '소금화석' 이란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진은 대스밸리 여행을 가서 필자와 함께 찍은 북가주 동창회원들 입니다.



### 시인 유봉희의 프로필

1965년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2002년 '문학과 창작' 신인상 당선  
 2003년 시집 '소금화석'  
 2006년 시집 '꽃민년의 걸음',  
 '한국 현대시 99인선'  
 연재 미주 문학인 협회 회원

### 소금화석

유봉희

죽음의 계곡에서 바라보는 산은

마안 눈 옥도리들 아직도 두르고 있다

어떤 센서로 저 산 위의 눈속 금방

해발 마이너스 95M까지 옮겨온 것일까

이곳은 지열을 뿜어내는 발 밑까지 마안

소금의 평원, 바다가 육지로 몸을 바꾼 곳

소금은 더 단단한 결정체로 가려는지

뜨겁게 달구어진 돌벽을 삼키고 있다

색 없는 색으로 발 밑에서 갈라지고 있다

새로운 생식 받아들이는 자리는

이렇게 흰 색이 마땅한 것인지. 그들은

한때 입렁이고 졸렁이면 기억들을 버린 것일까

아니면 오랜 시간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마양게 빛 바랜 화석으로 입렁이는 것일까

입렁이지 않는 돌체가 어디 있을까

감자기 밭 아래 소금밭이 쟁 빛속 낸다

마양게 졸렁이는 소금의 빛, 잠시

바다였던 소금의 돌결들이 밀려오고 있다.



### 알래스카 지회

김연순 지회장 (와약 59)



우리 지회는 매년 5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1,000.00 장학금을 4년째 지급하고 있으며, 벌써 5년째 지역 봉사로 홈리스 여성과 아동들을 위하여 기부, 봉사하는 등 보람있는 일을 하며, 9명의 회원들이 일년에 4번 회합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EWHA INTERNATIONAL FUND IN N.Y.에 장학금을 보내고 있으며, 2009년에는 파주 캠퍼스 프로젝트를 위하여 \$10,000.00을 약정하고 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지회는 인원이 적은 지회이나 이화와 이 지역에 크고도 명확한 활동을 보여주는 지회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틀란타 지회

장석란 지회장 (미술 68)



아틀란타 지회는 1980년 지금은 고인이되신 고 김희천 (사회사업과 60) 초대회장과 몇몇의 동창이 뜻을 같이 하여 발족되었으며 그당시는 잘모여야 10명 정도의 모임이었으며 필요할때만 1년에 2-3번 정도 모임을 가졌고 특별한 행사 없이 숨어있는 동창들을 찾는 일과 주로 동창들간의 친목을 위한 모임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현재 주소록에는 130명 가량의 동창들이 있지만 매달 모임은 20명에서 30명 정도의 동창들이 동창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큰행사가 있을 때는 더많은 동창이 모이지만 젊은 동창들은 직

장일과 또 아직 아이들이 어려 아주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한다. 10년-20년 전과는 틀리게 지금은 동창모임 말고도 취미가 같은 동창들끼리의 모임이있어 (예를 들어 골프 모임이든가 아니면 교회활동이 더욱더 적극적이고 활발해졌기 때문에) 동창모임의 참석 숫자가 적어지고 있으나 60년대를 전후하여 졸업하신 동창들 참석과 협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달 두번째 일요일 3시30분부터 6시까지 동창모임이있으며 3달에 한번씩 게스트를 모시고 우리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듣고 있다.

2월 7일 8명의동창이 정준희(문과 41) 선배님이게신 HEALTH & REHABILITATION CENTER 를 방문하여 노래와 한국 전통 부채춤, DREAM GIRLS DANCE 등의 공연을 펼쳐 노인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동창회에서 준비한 초콜릿을 선물하였다.

2월 14일 오후 3시30분 "나루" 일본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VALENTINE' S DAY 와 구정이 겹친 이번모임은 떡 과 초콜 : 이 준비되어 더욱더 명절 기분을 느낄수 있었다. 오늘의 주제는 " 사랑" 을 주제로한 글이나 사랑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다. 프린트해서 배부된 33 종류나 되는 사랑의 의미를 돌아가며 한줄씩 읽으면서 가지각색의 사랑에 많이 웃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3월 14일 2010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발표하였다. 불경기로 경비 절감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1년에 소식지 제작과 발송에 드는 비용 \$2000.00가량을 절약하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글로벌시대에 발맞추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메일로 동창회 모임안내와 소식을 알리기로 하였다.

4월11일 게스트로 모신 이해선 (피아노 64) 동창의 부군 김준휘(재활의학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박사의 "노년이 되면서 쉽게 생기는 골절의 예방과 응급치료" 중풍, 허리치료, 어깨통증 등에 관하여 좋은 말씀을 들었다. 졸업식과 어머니날 등 가정행사가 많은 5월은 동창 모임이 없다.

5월9일 제6회 총장배 골프대회가 NORTH FULTON GOLF COURSE 에서 22명의 동창들과 이화 사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등에 정제니 동창 (영문 64), 2등 변명섭 동창(식품영양 68), 3등 이인옥 동창 (가정관리85), 아차상 김정희 동창(약학79), 장타상 최문숙 동창(의학66)이 각각 수상하였다.

6월 13일 유옥희(피아노 63) 동창의 따님 TINA ENGLE이 동창 모두를 초대하였다. 날씨가 몹시 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동창들이 참석 하여 오늘의 모임이 더욱더 즐거운 모임이 되었다. 식사가끝난후 유옥희 동창의 부군 김창명(외과) 박사께서 "여성들의 건강" 에 관하여 특별 스피치를 해



주셨다. 약에 대한 잘못 복용에서 오는 부작용, 몸에 이로운 약과 해를 주는 약에 관하여 말씀을 주셨다. 좋은 음식과 또 좋은 말씀을 주신 유육회동창의 따님과 부군께 감사드립니다.

7월 11일 2010년 라스베가스에서의 통합동창회 진행과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모교 총동창회 회칙에 위배되면 안된다는 원칙에 아틀란타지회는 변함없음을 재 확인하였고 북미주에 있는 동창회의 정확한 이름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며 지회가 모여 연합한다는 뜻을 설명하였다. 아틀란타지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아틀란타지회" 가 정확한 이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였다.

8월 11일 지난 7월 17일에 덴버에서 지회장회의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했음을 알리고 라스베가스 통합동창회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 했음을 알렸다. 종전과 같이 2010년 제9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LOS ANGELES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알리고 많은 동창들의 참석을 부탁하였다. 2010년 12월 현회장과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게 되므로 2011년 부터 회장으로 봉사하게 될 후임에 관한 의견 나누다. 한달에 한번 모이는 동창모임을 두달에 한번씩 모이는 의견이 있어 의논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매달 모이던 모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20회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 장학금 수여식이 2010년 8월 14일 6시 30분부터 뷰포드 스프링홀에서 있었다. 아틀란타지회에서 \$1000.00을 후원하였다.

# 시

## 조용한

## 합창

## 길

## 성

## 교

낙여 먼 낙마다  
수현수 현 유례박 소리 내며  
생명을 길어 올리는 나무들  
몸 주름 가지마다 바람 불면 람히고  
여화 숲을 채우는 새들의 노래  
해빛 숲부실 아침을 약속한다  
어둠던 비바람의 뿔 밀어내고  
세피를 향찬  
하나로 향찬  
내일을 향찬 너와 나의 기도  
부들부들고 비비려던 몸마들  
파아얀 하늘을 날아오른다  
참가지에 남아있는 그리움의 흔적들  
가을 아리게 얼룩져  
지금은  
저 깊은 뿌리의 문소리여 귀들 모을 때  
순정고 내딛는 발걸음  
순의 명사는 살아  
변질되지 않는 인간교육  
순모되지 않은 여화정실  
사랑과 화해의 일바귀  
믿음과 소망의 원바귀  
성경과 베움의 천신을 다지며  
명사의 대포도 달린다  
진선미의 힘  
요고 작은 동창나무들의 당기고 끌어주는 힘  
소망의 시간 안에서  
악서거리 휘파람거리  
명찰은 창조주께  
어제 조종히 동창의 찬찬을 부들 배입니다.

## 볼티모어 지회

지명의 지회장 (약약 71)



저희 볼티모어 지회는 지난 4월 20일에 노 선희 회장님 덕에서 2010년 봄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정성이 깃든 맛있는 점심 식사와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볼티모어 지회는 발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대외적인 활동이나 행사보다는 회원들 간의 친목에 치중을 둔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임에서는 지금까지 모인 회비의 일부와 몇몇분의 도움으로 이화 국제재단에 \$3,000을 장학금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보스톤 지회

조수현 지회장 (수약 76)



2011년 총회를 즐겁게 준비하고 있는 보스톤 지회 새임원들과 이사들의 모임을 1월과 2월의 오찬회로 모였다. 3월과 4월엔 뉴잉글랜드 지역의 수학경시대회와 한국





학교 글짓기 대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4월에 주소록 2010을 프린트하여 나누었다.

4월에 이사회를 열어 2011년 10월 27-30일에 월담 웨스턴 호텔에서 이화국제재단과 북미주 지회연합회를 열기로 하였다.

5월엔 토론토의 강선희 동문의 오찬 초대를 받아 감사한 시간을 나누었다.

6월의 오찬회에는 양덕자(68 독문과) 동문의 접대로 열명이 모여 총회 참석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고

64년 법학과 졸업하시고 상담을 하고 계신 임나경 선배님과 93년 법학과 졸업하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 정선진 후배가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 나온 김윤경(88년 간호학과) 동문은 총동창회에서 보내온 선교수첩을 받고 자랑스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그의 채은혜(92 불문과), 이소연(97 수학과), 이진(07 영문과) 등 젊은 세대 동문들의 참석이 늘고 있다.

회장 조수현(76 수학), 부회장 이문희(77 작곡), 회계 이동은(96 약학)이 함께 했다.

이소연 동문(97 수학)은 인디애나에서 수학 박사과정을 끝냈으며 옥시덴탈 대학교의 강사를 역임했다. 이동은 동문(96 약학)은 약사로 활동하고 있다.

선배님!

오늘 여러 선배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외로운 유학 생활 가운데 이렇게 든든한 선배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힘이 불끈불끈 솟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또 뵙는 날을 기대하며

이진 올림(07 영문과, 클락대학교에서 5월에 영문학 석사 끝냄)

7월엔 탕글우드 뮤직센터에서 음악과 피크닉, 클락 미술관에서 피카소-드가 비고 관람을 하였다.



# 남가주 지회

오명애 지회장 (장미 74)



남가주동창회는 1953년에 설립되어, 현재 1,400여 명의 동문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임원은 23명, 이사는 30명이다. 임원회는 거의 매달 열리며 이사회는 일년에 두 번 열린다. 동창회 산하에는 선교부, 합창부, 골프부, 녹미회, 건미회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선교부는 매주, 그 외는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번씩 모이고 있다. 작년 11월 덴버 북미주지회연합회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벌인 주요 행사와 동창근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12월: +12일, 2010년 동창주소록이 발간됐다. 동창주소록은 이번이 네 번째로 1995년부터 매 5년마다 발간되고 있다. +13일, 정기총회 및 크리스마스 파티가 월서 그랜드 호텔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150여 명의 동창들과 이화의 사위들이 참석했으며, 순서는 1부 정기총회와 2부, 이화인의 밤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2010년 1월: +15일, 엘에이를 방문한 EGI (EWHA GLOBAL INITIATIVE) 4기 팀인 이화 재학생들과 이곳 동창들이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19일, 중앙일보에 아이티 성금, 1000달러 전달했다. +29일, 전 임원진의 마지막 임원회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주경(관현 75) 전회장은 기존에 오만여 달러였던 이화 정기에금(동창기금)을 2008년 패션쇼에서 얻은 만 달러를 추가한 것을 보고하고, 2009년에 모아진 금액을 다시 더하여 칠만 달러로 올리는 안건을 제시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월: +1일, 골프부에서 아이티 지진성금 500 달러를 한국일보에 전달했다. +12일, 현임원진의 첫 임원회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오명애 회장은 이화동창기금에 전회창단이 2만 달러 추가한 것과 전년도에서 동창회비로 이월된 금액이 1천 4백 달러임을 보고하고 주변에 더 많은 동창들에게 동창 회비를 받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월: +11일, 2010년 이사진의 첫 이사회가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부터 이사장을 맡게 된 김수경(작곡 75) 동문이 문금숙(국문 63) 동문과 박화자(간호

지회소식



EWHA 2010

66) 동문을 부이사장에 선임했다.  
 4월: \*8일, 맥카페에서 제 2 임원회 겸 동창회보 발송이 있었다. 동창회보는 4월과 11월, 일년에 두 번, 발간된다.

5월: \*16일, 제 7회 남가주 동문합창단 정기공연이 약 450여 명의 동창과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가곡과 성가 등, 6부로 나누어 진행이 된 이 공연에는 정매인(성악 60)동문의 독창과 이와 동문중창단의 순서도 곁들여졌다. 지회에는 엄인용(성악 72) 동문, 반주에는 최예린(피아노 04) 동문이 수고했다.

6월: \*17일, COYOTE HILLS GOLF COURSE에서 2010년 총장배 GOLF TOURNAMENT가 있었다. 이 행사는 매년 직계 동문자녀들의 장학기금을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이날은 동문들, 손님들, 모두 7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챔피언의 영예를 안은 한명자(체육 83) 동문은 하명숙골프회장이 기증한 \$500상당의 독수리 트로피와 부상을 받았다.

7월: \*11일, 일요일 저녁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이배용 총장의 환영회 및 간담회가 열렸다. 이 모임에는 약 80여 명의 동문과 환영객들이 참여했다. 동문합창단의 공연이 분위기를 더하였고, 저녁식사 후 2부에서는 "한일합방 100주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에 대한 총장님의 강연이 있었다. 모두들 지난 역사의 새로운 해석에 귀 기울였다. \*28일,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임시임원회가 열렸다. 이 모임에서는 2010년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를 남가주지회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관하여 논의했다.

8월: \*10일, 제 5회 임원회가 라미라다에 있는 르네상스 카페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남가주지회가 주최하는 북미주지회연합회에 대해 준비사항과 진행사항에 관해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다. 관광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담당자 선정, 회보 등. 많은 안건이 토의되었다. 시일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장소는 BONAVENTURE /보나벤처 호텔이다.

계획에 없었던 큰 행사인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를 남가주지회에서 치르게 되어 앞으로 남은 주요행사인 \*9월, 한가위 잔치 겸 패션쇼는 잠정 연기되었고 \*11월, 본 동창회 주최 녹미회 후원으로 개최한 미술전시회는 11월 북미주지회연합회 때, 보나벤처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12월, 올 한해를 마무리할 2010년 정기총회 및 송년파티는 11월 13일에 있을 북미주지회연합회 ANNUAL BANQUET 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동문 근황  
 김영교 (영문 63): 제 5 시집 '새롭게 떠나는 작은 새'를 3월 25일 출간했다. 출판기념회는 150여 명의 문인, 동창,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4일 LA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다.

정금숙 (국문 63, 윤금숙), 이영강(국문 66, 김영강), 임정아(가정 77, 이정아): 동인지 "참, 좋다" 를 6월 1일 출간했다. 출판기념회를 대신한 북사인회가 9월 18일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11시부터 3시까지 있을 예정이다.  
 이숙현 (가정 67): 이 동창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미청소년 오케스트라가 3월 13일 디즈니 홀에서 연주회가 있었다.  
 성기순 (섬예 69):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한국교육원에서 문학생들의 민화전시회를 열었고, 8월 5일에는 제 6차 미국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민화 WORKSHOP을 한국문화원에서 가졌다.  
 윤종임 (서양화 74): ANN 330 GALLERY에서 5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영국 사진작가 ALEXANDER JAMES의 TAXI SERIES 전시회를 열었다.  
 오은영 (경영 75): 6월 28일 한국여성경영자협회 17주년 기념행사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  
 이정현 (도서 76, 마국명 JOY KIM): 3월 5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연례학회에서 '북미지역 동아시아학 도서관 협회' 회장 취임식 가졌다.  
 최용순 (서양 77): 1월 16일에 제1회 어바인 시 한국의 날 행사에서 민화전을 개최했다.  
 후근향 (과교 86):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국제기후 회의에 참석했다.  
 최원선 (무용 96): 7월 30일 할리우드 포드 극장에서 "춤, 흐르는 숨결" 을 공연했다.

신시내티 지회

김영채 지회장 (영문 69)



저희 신시내티이화동창회는 다른 지역의 모임에 비해, 소규모의 모임이지만, 먼 이국땅에서 우리가 이화인임에 자부심을 갖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도우면서 이 사회의 자랑스런 이화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1년에 4번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그해의 마지막 모임인 11월에는 가을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선후배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모여 지난 1년의 생활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화인임을 느끼는 의미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6월5일 모임에서는 박진혜동창님(약사)께서 약의복용에 관한 중요한 의학상식을 나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다 좋은 것으로 알고있지만, 일반약과 잘못복용하면 건



강에 해를 끼칠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시내티 이화동창회가 발족한 이후로, 저희 이화동창회는 의미있는 사회봉사와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화동창회비를 모아서 서울의 이화여대 총동창회에 동창회비로 전달하고 장학금은 이화여대의 국제재단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0년의 사회봉사로 는 200개의 꽃사지를 준비하여 한국참전용사를 위한 한국전쟁 60주년을 행사하는 모임에 기부하였고 동창님들이 직접참여 하셔서 한국참전용사님들께 직접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한국전쟁 60주년행사는 6월 24일데이튼 (DAYTON, OHIO)에 있는 공군박물관 (AIR FORCE MUSEUM, DAYTON)에서 600여명의 미국장병님들과 가족 그리고 많은 관계자분들과 함께 그날을 기억하며 한국참전용사들을 위로 해 드렸습니다.그 모임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은 진심으로 저희 신시내티 이화동창님들을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 클리브랜드 지회

김진경 지회장 (의학 81)



클리브랜드 지역에서는 이화 동문들이 매달 한 번씩 모여 서로 친목을 나누며 한국의 모교 소식, 동창회 소식에 관심을 갖고 '이화'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두분의 동창께서 이곳 클리브랜드 지역에서 '이화'의 이름을 빛내 주셨습니다.

박영미 동문 ('96 의학과)께서 5월 16일 이곳 클리브랜드에 있는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MOLECULAR BIOLOGY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LESTER O. KRAMPITZ RESEARCH AWARD" 도 받았다고 합니다. 김진경 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한정심 동문 ('83 수학과)께서는 이화 자매 대학인 BALDWIN WALLACE UNIVERSITY에서 매년 그 해의 최우수 교수에게 수여하는 2010년도 "STROSACKER AWARD" 를 받았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화를 빛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6월에는 김진경 회장님 댁 뒷마당에서 정문경 동문의 주선으로 TAI CHI 강사인 MS. FRANNY GROMACKI를 초빙하여 TAI CHI 의 몇가지 기본 동작을 배우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휴스턴 지회

김성애 지회장 (도예 84)



휴스턴지회는 등록된 동창의 수는 100명 가량되는데 매달 모이는 회원은 20명 내외입니다. 저희 지회는 특별 행사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한달에 한번씩 동창들 집에서 모입니다. 만날때마다 좋은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들든지 또는 만드는 것을 배우면서 유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월에는 13년째 연례행사로 휴스턴 한인노인회에 구정떡국 잔치로 어른신들에게 효도해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매년 호숫가에 백조와 공작새가 함께 어울려 노닐고 아젤리아 꽃이 만발한 유명한 식당으로 꽃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올해는 기온이 예년 보다 낮아서 우리가 보려던 꽃은 보지 못하고 대신 동창들의 화기에 애한 얼굴에서 만발한 벚꽃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온근한 벚꽃의 향기를 만끽하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4월에는 휴스턴 박물관을 관람하고 휴스턴 동문들이 함께 힘을 모아 박물관에 기증한 고려 회청자기(11세기말-12세기초)를 감상하며 부듯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관이 개설된 후 4번째로 기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박물관에 이화여대 휴스턴지회의 자랑으로 남을 작품입니다.

5월15일에는 총회로 모여 2명의 모범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회장은 김성애 (도예 84졸), 부회장은 한승희 (사학 85졸)

우리 지회에 올해로 60회 회혼식을 한 이희숙(가정경제 49졸) 동창을 소개합니다. 술하에 6남매 손자손녀 17명 증손자 2명의 다복하고 풍성한 가정을 이루신 분으로 동창들에게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회혼식 사진을 2장 첨부합니다..

저희 지회에 자랑스런 동창을 소개 합니다. 김동월(영문 60졸) 동창은 미국에서 33년간 교편 생활을 하시고 지금은 텍사스 A&M UNIVERSITY에 재임중이시며 한국 전래 동화를 미국 정서에 맞게 영문 판으로 출판하셨습니다.(금도끼 은도끼, 콩쥐팥쥐, 삼년고개, 흥부 놀부, 청개구리) 이번 모임에서 저자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뉴욕 지회

유덕향 지회장 (약약 71)



대 뉴욕지구 동창회 초대 회장이시며, 주축 설립자이신 임길재 (33 명문) 박사님의 만99세 생일 잔치를, FLUSHING에 있는 LONG ISLAND CARE CENTER에서 많은 동문들과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강한 정신력으로 아직도 모교 이화와 동창회 사랑을 엿볼 수 있었으며, 생일 잔치에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며 눈물까지 글썽거리셨습니다.

4월 15일 국제재단 40주년 기념 만찬이 PARAMUS에 있는 RIDGEWOOD COUNTRY CLUB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만찬에서 HELEN KIM SOCIETY (LEADERSHIP AND HERITAGE)가 발족되었으며, 뉴욕 동창회는 ALICE APPENZELLER AWARD를 수상했다.

5월 1일 올해부터 시작된 지역 모임의 첫 번째 LONG ISLAND/QUEENS 모임이 안혜숙 (80 사회생활) 동창 덕에서 있었다. 동창회에 한번도 안 나온 동문들이 여러 분이 계셔 동문끼리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좋은 시간이었다.

5월 10일 정기 모임에서, 뉴욕 지회는 한국의 총동창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총동창회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한다는 뉴욕 지회의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5월 28일 사진 (2) INCLUDED  
 녹미회 (미술대학 동창모임) 13TH ANNUAL EXHIBITION 이 5월 24일~6월 6일까지 MANHATTAN SOHO에 있는 BROOME STREET GALLERY에서 있었는데, 14명의 동문들이 PAINTING, SCULPTURE, MIXED MEDIA로 참여했다. OPENING RECEPTION은 5월28일 임원진과 많은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다.

6월 5일 등반 모임의 첫 번째 모임으로 HIKING을 가졌다. 날씨가 조금 더운 편이었지만, ROSS DUCK PICNIC AREA (PALISADE INTERSTATE PARK, NJ)에서 1시간 반 동안 HIKING하고, 각자 싸 온 점심들을 펴놓고 즐거운 AFTER-HIKING 시간을 가졌다.

6월 10일 WESTCHESTER/CONNECTICUT 지역 모임을 GREENWICH, CT에 있는 강재옥 (68 생활미술) 동창 덕에서 가졌다. 아늑한 분위기에 가까이 사는 동창들이 오랜만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6월 16일 중부 NEW JERSEY 지역 모임이 유덕향 회장 덕

에서 있었다. 동창회 모임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동창회에 대해 많이 소개하였다.

6월 19일 북부 NEW JERSEY 지역 모임이 FORT LEE에 있는 산촌 식당에서 14분의 동창들이 모여 장화인 이사장님이 사 주신 맛있는 점심을 대하며, QUARTER에 한 번씩 모이기로 하고, 다음 모임은 9월 18일에 하기로 결정했다.

7월 17일 BARBECUE 모임을 LONG ISLAND에 있는 김기령 (81 명문) 동창 덕에서 가졌는데, 새 동창들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다.

8월 14일 MANHATTAN 지역 모임이 한국회 (80 법학) 동창 OFFICE에서 있었으며, 다음 모임은 한국회 동창 덕에서 BARBECUE 모임으로 가지기로 하였다.

8월 15일 SCHOLARSHIP COMMITTEE에서는 매년 수여하고 있는 뉴욕 지역 장학금 I (교포 자녀 대학생 2명)과 장학금 II (모교를 졸업하고 뉴욕 지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 1명)을 받을 학생들을 선별하였다.

앞으로의 모임은 9월 13일 정기 모임 (MANHATTAN), 9월 11일 STATEN ISLAND 지역 모임 (정은숙 (77 도서관학) 동창 덕), 9월 18일 두 번째 북부 NEW JERSEY 지역모임 (이옥남 (57 약학) 동창 덕), 10월 24일 연례만찬 (FLUSHING, 대동 연회장)이 있을 예정입니다.

### 오타와 지회

장소영 지회장 (사복 75)



5.26. : 2010년도 총회를 코리아나 한인 음식점에서 최근 가장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해 활동보고와 재정보고를 통과하고, 새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이 결과

회장에 차정자, 부회장에 이연숙 (간호학 72 입학) 동문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어 한마음 한뜻을 지닌 아름다운 이화의 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6.9. : 회장단과 새로 선출된 임원진과 함께 수라 한인 음식점에서 첫번 임원회를 가지고 일년동안의 계획을 의논 결정하였다. 새 임원으로 수고하실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총무 : 한은신 (수학 82); 회계 : 백경자 (교





육학 90); 봉사부장 - 박진희 (생물학 88); 섭외부장 : 이은경 (장식미술학 89)

8.14 :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정미경 (정외학 87) 과 김희정 (불문학 88) 두동문의 송별회로 모든 동문들이 회장실에서 모이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김희정 동문께서 하루전에 떠나시게 되어 참석을 못하셨으나 우리들의 정을 전하기위해 준비한 선물을 회장단에서 전하여 드렸다.

여름철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시는 동문들이 참석하지 못하여 섭섭했으나, 우리는 축복받은 화창한 그날에 회장덕 정원에서 신선한 야채와 불고기 바베큐와 맛있는 갖가지반찬과 또 포도주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정든 정미경 동문을 서운한 마음으로 보내드렸다. 그러나 대신 새로 오신 임성민 동문 (비서학 02) 을 맞게되어 우리마음을 한결 기쁘게 하여 주었다.

9.22 : 닥아오는 추석놀이를 하기위하여 다음 모임을 이날에 가지기로 하였다.

### 세인트 루이스 지회

정흥순 지회장 (성악 62)

최혜영 동문 (생활미술 '86-' 89)은 작년가을, 북음을 전하는 어린이전도협회 국제본부 (CEF) 에서 발행하는 모든 교재, 웹사이트등을 알아보는 미술담당 선교사로서 훈련을 마치고, 선교후원팀을 만드는 미술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최선교사님의 성공을 축하하는 조출한 연회를 5월 17일에 가졌습니다.

강지애 동문 (물리교육학 '97)은 이곳 워싱턴대학에서 연구를 마친 남편 (안과의사)과 함께 6월15일 귀국했습니다.

특기할 일은 8월4일 조숙자 동문 (중문학 '95) 이 워싱턴대학에서 학위논문을 완성하고 PHOENIX의 아리조나 주립대학에 교수로서 취임했습니다. 이미 서울대학에서 중국문학의 학위를 받은바 있는 조박사는 두번째 학위를 취득한 것입니다. 학위논문은 "LIANG-ZHU IN CHINA AND KOREA" , 비교문학 연구입니다. 신진기에 조박사의 학문적 장래에 우리 모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지회는 7월 13일 모임을 가지고, 모교의 총동창회칙을 준수하는 입장을 정리하여 우리의 단합된 의견을 김순영 총동창회장님께 전송했습니다. 최경선 동문을 비롯하여, 정선주, 양혜자, 최혜영 동문 그리고 제가 열띤 그러나 화기애애한 토론을 벌여 즐거운 한때를 가졌습니다.

### 북가주 지회

조성연 지회장 (사회 90)



3월 6일(토): 정기총회를 열고 양승희 회장(사학 73)의 인사 후, 서기보고, 업무보고, 회계보고가 통과되었다. 이어 조성연 동창(사회학과 90)이 제 22대 북가주 동창회장으로 당선되었다.

4월3일(토): 뉴와에 있는 니조케슬 일식당에서 4월정기모임을 가졌다. 신임 조성연 회장의 인사로 시작한 모임에서 향후 동창회에 바라는 여러가지 의견들을 나누며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다.

5월1일(토):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서니베일 아트 갤러리 카페에서 5월정기모임을 가졌다. 책임원진을 소개하고 한의사 송순용님의 "땀을 통한 자가 치료법" 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5월3일(월): 북가주 한인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대표적인 두단체인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와 한미 봉사회에 각 300불씩 기부금을 보냈다.

6월5일(토):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ASIAN ART MUSEUM을 방문하여서, 관내 ART DOCENT 이신 BIANCA LARSON 과 LOIS ALPERT의 안내로 한국관의 도자기 컬렉션 위주로 관람을 하였다. 한국인이 아닌 분들이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배우고 사랑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우리 문화와 예술에 대한 자긍심이 더해지는 기회였다.

이어 박물관내에서 점심식사 후 6월 정기모임을 갖고 2008,09년의 회계 감사보고가 통과 되었다.

7월 3일(토): 40여명의 동창들이 모여 버클리의 명소인 HS LORDSHIPS RESTAURANT에서 여름바다를 바라보면서 브런치 부패를 즐겼다. 미국 독립기념일 전날이었지만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여 동창회의 발전에 대하여 의논을 교환하였으며, 북가주 지회는 서울 모교 동창회 회칙에 따라야 한다는 뜻을 함께 모았다.

8월 7일 (토):서니베일시에 있는 CHOCOLATE SUSHI & TOFU HOUSE에서 8월 정기모임을 갖고 11월 11일부터 14일 까지 L.A. 에서 개최될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의 참석에 대해서 상의하였다. 또 양승희 전 회장님이 그동안의 통합동창회에 대한 문제점과 7.17 덴버결의안, 총동창회 김순영 회장님의 서신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였다.

회의가 끝난 후에 북가주 한국 케이블 TV쇼 인 "사람과 이야기" 의 진행자이신 이원창님이 오셔서 '캘리포니아를 움직이는 여성 삼총사'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다.



# 시애틀 지회

이정형 이사장 (약학 63)



2월: 2월 13일 FEDERAL WAY 에 있는 신성 RESTAURANT 에서 모여서 2010년의 새 회장단을 선출했다. 회장 권명순 (69생미), 부회장 황현숙 (75사생), 회계 정미호 (84섬예), 서기 남시은 (88섬예)

2009년에 수고하신 회장단, 백신자 회장(64 영문), 부회장 이정열(67 조소 입), 총무 홍성희 (68 약학), 회계 김경자 (64 사학), 서기 서희경 (86 화학)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앞으로 더 많은 동창들의 참여와 친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부서를 구성 강화했다. 문예:조영연, 문화:박정혜, 상담:황현숙, 친교:조혜숙 골프:현미경, 산행:홍성희, 여행:안경숙, 서예:유양수 음악:김명희, 섭외:마혜화

회장단에서는 2010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우고 동창회모임은 매월 3번째 토요일 12시로 정했다

- 3월 20일 (토): 권명순회장 자택
- 4월 17일 (토): 황 현숙 부회장 자택
- 5월 12일 (수): 이화 3중주 연주회 -조연자 (66 기약)동창자택
- 6월 19일 (토): 미정
- 7월 17일 (토): PICNIC, 장소 미정
- 8월 13-14일(금,토) : 1박 2일 여행, LEAVENWORTH
- 9월 18일 (토): FOOD BAZAAR : 장소 미정
- 10월 24-27일 (일~수): 북미주 총회
- 11월 6일 (토): 월례모임, 장소 미정
- 12월 4일 (토): 송년 파티, 장소 미정

3번째 연주회를 5월12일로 정하고 동창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하고 연주곡을 선정했다. 피아노: 이해연 (기 기약), 바이올린: 조경희 (기 기약), 첼로: 조연자 (66 기약). 연주곡: 가교파 - 김동진 - LH LIBE DIHI(그대를 사랑해), - BEETHOVEN - LA SERENATA (천사의 세레나데) - BRAGA MENUETTO - MOZART

WALTZ - BRAHMS  
SALUT D' AMOUR (사랑의 인사) : ELGAR  
MENUET - BACH ETC.

5월 19-20 일 1박 2일동안 골프부에선 캐나다 HARRISON HOT SPRINGS로 골프원정을 다녀왔다.

7월 소식: 7월9일(금요일) 오전 11:00 시-오후 6:30 시까지 SEATTLE에 있는 CARKEEK PARK 에서 동창및 가족 42 명이 모여서 즐거운 피크닉을 가졌다.

# 북 텍사스 지회

김연향 지회장 (교육 62)



3월 31일에 수라 레스토랑에서 2010년 정기 동창회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특별히 초대한 가족과 손님들, 모두 약 70여명이 참석했는데, 동창회의 토의를 끝내고, 즐거운 음악회의 시간을 가졌다.

동창회 회의에서는 특별히 모교 파주캠퍼스의 기금에 관해서 상의하였고, 작년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액수에는 상관 없이 많은 동문들이 이 기금 모금에 참가하도록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연향 회장이 이화국제 재단을 통해서 기금이 보내지도록 PLEDGE FORM을 특별히 마련하여 배부하였다.

음악회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유정연 동문 (국악과), 현재 UNIVERSITY OF NORTH TEXAS (DENTON, TEXAS)의 음대 대학원에 수학하는 권혜령 동문(성악)과 양운주 동문 (성악), 그리고 지역 음악인 (RINNA SAUN, 최현준, 장철웅), 여섯분이 가야금 산조, 피아노 독주 (CHOPIN의 FANTASIE-IMPROMTU)를 위시하여, 한국 가곡들 (목련화, 내마음, 산촌)로 오래간만에 아름답고 푸짐한 시간으로 즐기었다. 연주자들에게는 선물과 장학금을 증정하였고, 끝으로 김연향 회장은 이경화 전회장의 전임 기간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여 감사선물을 드렸다.



## 워싱턴 D.C. 지회

이정결 이사장 (사병 61)



1957년에 첫 모임을 가진 WASHINGTON DC 지회는 350명의 동문들이 MARYLAND, WASHINGTON DC, VIRGINI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회행사를 보면 1월 12일에 이정결 부회장님 덕에서 첫 임원회로 모여서 맛있는 점심대접도 받고 금년 한해동안 해야할 일들을 의론 했습니다.

2월에는 VALENTINE PARTY 로 POTLUCK 점심을 나누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4월 17일에는 학술 진흥재단 초청으로 이곳을 방문하신 이대 사회생활과 이영민 교수님 일행과 이곳 동문들이 이정결 이사장덕에 모여 환영 만찬을 갖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5월에는 이화대학 국제 하기 학교에 참석하는 학생 2명에게 해마다 연례행사로 지급하는 \$600을 보조했습니다.

6월 12일에는 지회 이화 합창단이 작은 음악회를 열고 \$2000 장학금을 모금해서 모교 음대 하기학교 장학금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지회에서는 이외에 작은 성금을 몇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밀알 선교회; 여자 한국인 수감원선교; 고아원 보조 등등입니다.

8월 5일에는 지회운영을 위한 긴급 이사회로 모였습니다.

## 캐나다 - 에드몬트 지회

김정자 지회장 (기독 6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국악과 재학생팀 "ATO" 에드몬톤 방문.

캐나다 알버타주의 년중 복합문화 행사중 가장 규모가 큰(3일 행사기간중 약 30만명 관람), 160여개국 소수민족의 다양한 전통문화, 전통음식, 고유춤 감상하고 또 진귀한 갖가지 음식맛을 보기도 하는 "허리테이지 축제" 에 한국 전통국악을 선보이기 위하여 ATO 팀의 문지영, 주지영, 채화정, 강다영 후배들이 참여하여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하면 우리같은 박수를 받았다.

에드몬톤 한인회 와 L & K INTERNATIONAL 의 수고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다.





# 캐나다 - 토론토

조미리 (도예 81)



1월 13일과 19일 : 두 번의 동문 스키 모임이 있었으며,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는 동문들이 함께 모여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체력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월 5일과 12일 : 연임된 회장단은 두차례 임원회를 갖고 1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다 활기찬 동문회가 되기 위하여 매달 모임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

3월 5일 정기총회 : 각 동문께 미리 소식지를 우편을 통해 알렸으며, 16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회장선거시기와 본교 총동창회 회비 납부방법, 그리고 북미주연합회 명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활동보고로는 동창회기와 동창회 조기제작을 알렸으며, 이를 총회 때와 각종 행사 때 사용하고 동문들 조문시 동창회 조기를 배달해 드릴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토론토 지회 이메일 "TORONTOEWhA@GMAIL.COM" 개설을 알려 동문회 관련 메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이외에 웹사이트 광고비용, 이동도서관 개설, 이화골프모임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북미주 총동창회 관련 소식을 전해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하도록 부탁드렸다.

4월 13일 햇볕회 : 유인희(체육 56)고문 댁에서 햇볕회 모임을 21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찬송가 40장에 이어 전해순(보건교육 69)동문의 '빛과 소금' 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으며, 최경자(영문 63)목사님이 '원죄인가? 원족복인가?'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성경을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다. 이정준(가정65)동문이 햇볕회 모금 사용처에 대해 이화선교사업에 쓰여지도록 건의하여 매 해 말에 헌금을 모아서 보내지도록 결정하였다.

5월 29일 연례 야유회 : 작년과 같은 장소인 G. ROSS LORD PARK에서 아침 11시부터 시작되었다. 아름다운 날씨에 48명의 동문및 가족들이 모였으며, 식기도를 시작으로 동문회에서 준비한 맛난 음식과 동문들이 가져온 다양한 후식과 과일들을 나누었다. 국민체조를 시작으로 게임을 함께 즐겼으며 선후배들간의 소중한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자리가 되었다.

6월 15일 이화여대 동창회 북미주 연합회 대책회의 : 역대 회장, 고문들을 모시고 임원들과 함께 진통을 겪고 있는 북미주 연합회의 회칙및 명칭, 운영방법에 대

한 대책회의가 있었다. 이메일을 통하여 전체 동문들에게 의견을 구한 것과 그 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북미주 각 지회와 서울 동창회에 전달 하였다. 북미주 연합회는 '진선미' 의 이화정신에 기초하고 총동창회 회칙을 기본으로 삼아 정당하고 합법적인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토 지회 의견이었다.

7월 10일 부부골프대회 : 매 주 수요일 골프모임을 갖어 온 이화골프부에서 부부골프모임을 37명의 동문 및 이화 사위들의 참석하에 개최하여 건강을 도모하는 동시에 선후배들과 부부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부부팀 1등은 김명숙(경영 74)동문 부부, 여자부 1등은 김유경(불문 84)동문, 남자부 1등은 원정민(생미 80)동문 부군인 김도현님이 되었다.

9월과 10월에는 햇볕회 모임이 있을 예정이고, 10월 2일에는 연례 대학 친선 골프대회에 참여한다.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북미주연합회 모임이 LA에서 열릴 예정이며, 11월 21일에는 연말파티가 계획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인 WWW.EWHATORONTO.COM에서 볼 수 있다.

동문소식 : 2월에 이화의 선구자 김배세(가정34)동문의 100세 생신 연을 맞이하는 경사가 있었다. 동문은 아직도 기억력이 또렷하고 건강하시다 하며, 동문회에서는 축하꽃을 보내드리며 만수무강을 기원드렸다. 세 따님 또한 이화 동문이다.

4월 23일 박유경(불문 84)동문의 시문학동인 '시, 6토론토' 의 두 번째 동인지인 '시간을 보여주마' 의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오랜기간 병고로 양로원에 있던 하인성(교육공학 69)동문이 5월 31일 영면하셨다. 동문회에서는 조기를 보내 유족들을 위로해 드렸다.

한인교향악단, 한인합창단, 재캐나다 한인미술인협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동문들의 연례 공연및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 아리조나 지회

조안숙 지회장 (전산 89)

이곳은 매달 꾸준히 10명에서 15명 정도씩 화기애애하게 모이고 있었읍니다

## 하와이 지회

곽영자 지회장 (의약 70)

많지않은 동문이지만 꾸준히 모이고 있습니다





## 칭찬 전문가

오래 전부터 내가 잘 다니는 단골가게 중에 책방과 꽃집과 옷감가게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옷감가게가 곧 문을 닫게 된다고 한다. 섭섭하기도 하고 또 클로징 세일이라고 싸게 팔기도 하기에 몇 번 더 들락거리게 되었다. 그 날은 마침 저녁 무렵에 들렀는데 세 번째 커팅테이블에서 옷감을 잘라주는 점원은 처음 보는 여자였다. 좀 넉넉한 체구의 길고 검은 머리를 한 이 사람은 저녁 근무이니 바쁠 게 없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꼼지락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짜증이 나지만 할 수 없이 앞사람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세히 보니 꼼지락이 아니라 꼼꼼한 것이 그녀의 성격인 것 같았다. 옷감을 정확하게 자르더니 아귀에 맞추어 각도 있게 착착 접어주면서 카운터로 가져갈 계산 용지도 드물게 보는 깔끔한 글씨로 써서 주었다. 바로 내 앞의 손님은 여러 가지 리본테이프를 샀는데 그걸 하나하나 맡아주는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왼손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8자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니 풀리지도 않았다. 이제까지 근 10년을 드나들었던 것만 그렇게 꼼꼼하게 옷감을 접어주거나 테이프를 예쁘게 맡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맘속에 그녀만의 잣대가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맘속에 자기 스스로를 재어보는 자기만의 잣대 하나씩을 갖고 산다.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속도를 가진 잣대.

드디어 내 차례. 내가 고른 옷감을 자르는 동안 나는 그녀의 테이프 맡아주는 솜씨가 놀랍다고 칭찬의 말을 했다. 정말 놀라운 솜씨였다. 나의 사소한 칭찬 한 마디에 그녀의 표정이 금방 환해졌다. 나도 흥내를 내어 따라해 보았다. 아주 쉽다면서 요령을 알려주는 그녀는 더욱 밝은 표정이 되어 잘한다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는 것이었다. 자기만 아는 기술을 나누어 준다는 기쁨이었을까? 그리고 윈크를 슬쩍 하면서 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연습하던 짜투리 테이프를 내 옷감 위에 살짝 얹어 놓았다. 땡큐 라고 말하는 나도 그 여자도 아주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는 옷감가게 점원으로서 거기에 걸맞게 프로페셔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칭찬, 그렇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 한 마디가 피곤하고 짜증나는 저녁 시간을 생기 있게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정말 칭찬에 인색하게 생활해 왔다. 칭찬하는 것이나 듣는 것에 대해 속스럽다고만 생각해 왔다.



신영봉  
교육 69  
캐나다 토론토 거주

가족 간에도 역시 그렇다. 내가 진작에 이런 걸 알았더라면 아이들 자랄 때에 칭찬을 듬뿍 해줄 걸, 부부간에도 간지러운 칭찬이라도 자주 하며 지낼 걸, 그리고 너그러운 잣대로 나 스스로에게도 자주 칭찬해 줄 걸 하는 마음이 된다.

최근에 나는 뭐 별로 신통한 전문기술도 없건만 재봉틀로 무언가 만드는 것이 재미있어서 작은 소품들을 만들며 "어? 내 취미가 바느질인가?" 라고 생각하게 까지 되었다. 양로원에서 헌옷을 꿰매거나 바자용품 만들며 배운 영성한 솜씨인데 가르쳐주시는 노수녀님이 언제나 늘 칭찬만을 하시는 것이었다. 그 분은 칭찬 전문가이다. 내가 받은 선물도 유아 소스페셜 (YOU ARE SEW SPECIAL) 이라는 글씨가 색여진 앙증맞은 실패였다. 그리고 별명 아닌 별명 소잉 레이디로 불려지게 되었다. 요사이 내가 만든 가방을 보면서 내가 생각해도 놀라운 발전이 신기해서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아는 H선생은 목공일에 취미가 있어서 집안 구석구석 많은 소품들을 만들어 놓았다. 또 개울을 끼고 있는 넓은 마당에 아름다운 정원을 손수 꾸미고 향나무로 된 정자와 벤치와 테이블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여름 마당의 새소리와 수풀에서 풍겨오는 나무 향기와 나무 가지 끝을 흔드는 바람과 햇빛에 취해 아침부터 하루종일 밖에서 산다. 지난봄엔 그 덕 마당에 가끔 들려 일의 진척을 보는 것이 즐거웠었다. 나도 칭찬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맘껏 감탄하고 칭찬해 드렸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마감하는 그 날, 높이 계신 그 분께 잘했다 칭찬 듣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그 분께도 그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했다는 칭찬의 말을 해드리다면 빙그레 웃으실까. (끝)



# 이희련 회장님에게

## 북미주 통합 동창총회 를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고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서울의 이화총동창회 홍보부장 김용란입니다. 지난 덴버총회에도 참석했었습니다.

7월 말경 <북미주 이화동창> 매거진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매거진을 받아 본 후, 왜 최근 북미주에서 시끄럽고 결의문까지 나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그 매거진은 통합을 위한 회보지가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잡지입니다.

작자미상의 사설처럼 써여진 「먹찬 통합의 기쁨으로 성숙한 동창회를 키워 가자」라는 글에서 서울의 총동창회, 이화국제재단, 북미주 지회연합회 모두 씨잡아 역사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고 통합의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자가 없는 글은 발행인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희련 회장의 뜻으로 쓰여진 글인가요?

그 글의 둘째 문단에서 "...그곳 동창회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합의하여 북미주 총회에서 의견, 총동창회에 보고하면 이곳에서도 의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총동창회의 답에 "이제는 총동창회와 세계 여러나라에 존재하는 지역 동창회와의 관계도 전통적인 수직의 식에서 .....수평으로 긴밀하게 전환되어 서로의....." 로 되어 있는데 한글 뜻을 이해 못하셨는지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보낸 결과에 이곳 총동창회 회의에서 무결할 수도 있고 가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총동창회와 세계 모든 지회와의 관계가 수직이냐 수평이냐 표현하는데 총동창회는 17만여명의 이화동창을 위한 총동창회이고 북미주의 통합동창회는 1만여 북미주 거주 동창을 위한 동창회입니다.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는 총동창회 산하에 있는 일부분의 지역 동창회일 뿐입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국제재단의 ARC를 언급하며 국제재단이 북미주의 동창들의 모임을 국제재단에 종속하도록 하겠다는 어불성설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탄생을 지적하며 "가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일이 있다.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이해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일어난 대로 보도함이 이화인들이 가져야할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왜곡보도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요즘은 메일이 오고가며 벌어진 사태와 이 잡지를 보면 왜 그 당시 모교와 총동창회에서 북미주총동창회를 인정할 수 없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북미주총동창회의 무례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소수 혹은 돈 있는 한분의 횡포가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글까지 날게 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훑어보면 11page에 「동창회장학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광고성 글이군요. 북미주에는 이화국제재단이라는 장학금을 총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장학금을 따로 수여하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창회장학사업」란에는 어느 지역의 장학사업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첫머리에 "우리 동창회는...." 이라고 써여져 있어 통합동창회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한 지역 또는 북미주총동창회에서 하던 사업을 통합동창회에서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 아닌지요. "전 북미주총동창회에서 하던 장학사업" 이라고 솔직히 밝히면 어떤 분의 재력으로 이 잡지의 편집이 취약파라 만들어졌어도 처사해 보이지는 않았을 텐데요.

13page의 「Dear 이희련 선배님」의 글에서는 북미주 통합동창회의 명칭에 관한 의견을 보이며 지회의 모임을 부정하면서 "지회의 문턱이 높다"고 표현했는데, 근처 지회참석이 문턱이 높다면 북미주총회는 산을 넘어 강 건너 비행기 타고가야 하는데 그쪽이 더 편하다 하시니 그분은 지회에서 왕따당하고 계셔서 그런 글이 나왔나? 의심이 갑니다. 통합을 위한 첫 모임을 위한 잡지라며 그런 글을 실으신 편집자 여러분의 용기가 대단하시군요.

1950년대부터 북미주 지회가 하나 둘 생기면서 선배동창분 아니라 현재 35개의 지회 동창들이 각자 그들이 사시는 지역의 지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지중지 이끌어오셨습니다. 이화인의 정신은 남을 위한 배려와 섬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운경 총장의

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한사람의 의견이지만 <북미주 이화동창> 잡지는 북미주 모든 동창이 얻을 것입니다. 통합을 위한다면 북미주총동창회의 상대방인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들을 배려해서도 그런 글은 사전에 삭제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또 틀린 점 지적할까요?

이번에 새로 되신 이화여대 총장님의 성함은 '김선욱'이 아니라 '김선욱'입니다. 이배용 총장님이 글을 빼달라 하셔도 막무가내로 인쇄하여 배부 하였지만 신입 총장의 성함이 첫 번부터 틀려 어찌하나요?

목차를 보면 10월 24일 이사회가 열리고 25일에 총회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순서에 '회칙수정안 보고, 인준'이 있습니다. 위문스러운 것은 총회에서 회칙이 인준 안 되었는데 그전 날 이사회가 열릴 수 있는 지? 이사회는 회칙에 정하여져서 통합동창회에서 처음 열리는 것인데 그들이 무슨 권한으로 예산, 결산 심의 등 토의 가결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 8page에도 임원진 명단이 있는데 총회에서 회칙도 인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무슨 위원회나 부서명부터 임원진 이름을 매거진에 실을 수 있는 지 성격이 급한 분들이라도 대학을 나온 분들이면 사리판단하여 무엇이 우선 순서인지 배웠을 텐데 여간 우습지 않습니다. 결국 회칙이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여 멋대로 안 지켜도 된다는 뜻 아닌지요? 모든 회칙도 그렇게 생각하여 그런 식으로 북미주총동창회도 그렇게 운영되었는지요?

이왕 말이 나온김에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지난 덴버회의는 대한민국 시장바닥 회의보다도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중 최고국가인 미국에서 한국의 최고 여자대학을 졸업한 동창들의 회의라는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가끔 우습게 회의를 한 적은 있지만 저희 총동창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무례한 회의를 안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진중하게 총회를 진행하고 이화인의 정신을 잊지 않으며 신중하게 회의를 진행합니다.

전 뒤에서 총회관람만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결된 것은 1만인 영어명칭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하나뿐이었습니다. 2안, 3안이 가결되었다고 하는데 참석인원수도 확인 안하고 찬성숫자가 참석인원수보다 많은 것으로 발표되지 않나 이수리장을 방불케 하여 구령이 담 넘어가듯 2안, 3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2안은 이사회에 관한 안전인데 북미주 통합동창회의 회칙에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명확하게 표시된 것이 없습니다. 당연치 이사는 몇 명이어야 하고 선출직 이사는 몇 명이어야 한다는 이사회구성에 관한 표기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이사 자격에 있어서도 선출직 이사는 "동창회 발전에 관심있고 이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이라고 막연하게 표기하며 회비가 \$100이러는데 \$100 지불하여 이사가 된다면 의견권이 없는 동창회 후원이사자 \$100 회비 내고 거주 표시하라는 것은 아무리 동창회가 재정이 부족해도 의견권을 판매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100불 아니라 \$10,000씩 받던지, 확실하게 동창회 재정을 도울 있으니... \$100 회비내고 의견권 있는 이사로 구성된 동창회에 얼마나 많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든 분들은 알고 짐작하실 것입니다. 당연직이사인 지회장들은 그래도 각 지회를 1년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고 지회 동창들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 이사의 자격은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1973년 졸업생이고 최근에 총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예전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미주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행태로 볼때 2010년 모교와 총동창회에서 시카고 중심의 북미주총동창회를 왜 배재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잡지에 역사운해도 잡지 전체 글을 보면 얼마나 무례하고 말만 통합이지 결국 상대방을 무시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안하무인의 북미주총동창회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엉터리 잡지가 후세에 후배들이 동창회 50주년, 100주년 하며 북미주의 동창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될 터인데 그들이 그 글을 읽고 얼마나 실소하며 무끄러워할지 제가 무끄럽기까지 합니다.

이희련 회장님이 그 책 모든 것을 쓰지도 편집하지도 않으셨겠지만 발행인으로써 책임을 지셔야 하니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0년 8월 9일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홍보부장 김용란 올림





**Garden Suite Hotel**  
가든 스위트 호텔

## 이 시대 최고의 귀족으로 모십니다

고객 여러분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와 최고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든 스위트 호텔 연혁**  
풍격높은 아름다운 연회장, VIP룸, 가든룸, 캘리포니아풍은 결혼식, 약혼식, 세미나등 각종 행사에 풍격을 더 해줄 것입니다.

**가든 스위트 케어링**  
높위있는 분위기 연출과 세련된 서비스, 정성어린 음식과 저렴한 가격

**Garden Suite Hotel**  
가든 스위트 호텔  
6815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3.0000 Fax. 213.383.3082  
e-mail: garden@gardensuitehotel.com www.gardensuitehotel.com

항상 즐거운 여행을 보장하는

# 센추럴 여행사

- ▣ 여행 업무 전반 취급
- ▣ 비자 연장
- ▣ 재입국 신청

Tel. (323) 733-0147  
Fax. (323) 733-0144

3337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Email: Centraltravelservice@yahoo.com



이화여자대학교 동문총회 북미주지회연합회  
Ewha Wome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O.Box 74178 L.A., CA 90004-0178



**Registration form**  
참가 신청서

Name	인글	
	English	
졸업년도	졸업학과	
동창회 지회명		
Address	Street	
	City	State Zipcode
Phone	Home	Cell
Email		
참가비용 내역		
등록비	\$20	
총장님과 만찬	\$100	
Universal Studio Tour *	\$100	
Getty Museum & 시내 관광 *	\$50	
Annual Banquet	\$100	
참가연필 _____ 필 참가비용 \$ _____		

\* 표시한 것은 Optional입니다.  
- 참가비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수표로 참가하여 9월 30일 까지 보내주세요.  
Check Payable to "Ewha Womens University Alumnae"  
보내실 곳: P.O.Box 74178 L.A., CA 90004-0178

**Hotel Reservation Info:**  
The Westin Bonaventure Hotel  
404 South Figueroa Street, L.A., CA  
213-624-1000  
www.thebonaventure.com

호텔 예약시 그룹코드 번호를 말씀하세요. 347084  
(4인 1실 가능 합니다.)

**Room Reservation Link**  
Guests can book using SET Number 347084.  
This discount will already be reflected in the rate offered.  
[http://www.starwoodhotels.com/westin/search/pre\\_decider\\_all?propertyID=01004&corporateAccountNumber=%20347084](http://www.starwoodhotels.com/westin/search/pre_decider_all?propertyID=01004&corporateAccountNumber=%20347084)

**제 9회 이화여대 동문총회 북미주지회연합회 공식일정**

**행사기간:** 11월 11,12,13,14일  
**장소:** The Westin Bonaventure Hotel  
404 South Figueroa Street, L.A., CA  
213-624-1000  
www.thebonaventure.com

- 행사일정**
- 11월 11일 (목)** 오후 도착 호텔 체크인 (The Westin Bonaventure Hotel) Wi Spa (점심방) 2700 Wilshire Boulevard, L.A., CA 90057-3202 213-487-2700
  - 11월 12일 (금)** 7am-9am 조찬/체조(아침운동)  
9:30am-5:30pm Universal Studio Tour(Optional\*)  
6:30pm-11pm 총장님과의 만찬 (Hollywood Ballroom in Bonaventure Hotel)  
10:00pm- 이사 회의 (저희장 회의)
  - 11월 13일 (토)** 7am-9am 조찬/체조(아침운동)  
9am-12pm 이화북미주지회연합회총회  
1pm-4pm 세미나/학술 및 클래스 (창조과학, 건강, 민화) or  
1pm-5pm Getty Museum & 시내관광(Optional\*)  
6:30pm-11pm Annual Banquet (Hollywood Ballroom in Bonaventure Hotel)
  - 11월 14일 (일)** 7am-9am 조찬/주일예배  
폐회

\* Optional 은 참가신청서를 참조하세요.

**문의전화**

- |            |      |              |
|------------|------|--------------|
| 회장         | 오 명매 | 562-926-3001 |
| 남기주 지회 부회장 | 김 정순 | 714-606-9956 |
| 남기주 지회 부회장 | 장 계원 | 714-496-6621 |
| 남기주 지회 총무  | 황 예원 | 310-408-5244 |
| 남기주 지회 총무  | 정 연숙 | 213-215-1821 |





2010 Los Angeles 총회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 오명애 (장식미술 74)



2010년 제 9 회



Los Angeles



이화여자대학교

#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North America Conference  
November 11 - 14, 2010



**The Westin Bonaventure Hotel  
Los Angeles, California**

Last modified : 2011.07.19 <01:49>